

항공업계 제휴 활발 KAL, 아시아나 등

대한항공은 최근 호주의 안sett 항공과 공동으로 운항하는 협약(코드셰어)을 체결하는 등 이미 10개사에 가까운 외국 항공사들과 업무제휴를 맺었으며 앞으로 이같은 제휴를 적극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올 들어서만 호주 콰타스항공을 비롯해 외국 3개사와 공동운항계약을 맺었다.

공동운항이란 자사소속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제휴를 맺은 항공사의 좌석을 일정 부분 할당받아 승객들에게 파는 것. 남은 좌석이 없거나 승객이 요구하는 노선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항공사의 남은 좌석을 연결해 주는 엔도스(승객양도)보다 진전된 방식이다. 공동운항도 비행기표 값은 실제 비행기를 띄운 회사, 즉 제휴항공사에 넘겨주게 돼 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제휴항공사의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늘리는 한편 제휴항공사를 통해 자사 비행기 좌석을 팔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6일부터 콰타스 항공과 업무제휴를 시작하면서 서울-시드니노선을 종전 아시아나항공의 주 2

회외에 콰타스의 주 3회를 포함해 모두 5차례 운항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공동운항 제휴현황

항공사	제휴시기	제휴항공사
대한항공	93. 9	에어 캐나다
	94. 1	에어 뉴질랜드
	95. 7	델타
	91. 1	가루다 인도네시아
	96. 6	이베리아항공
	-	사우디아
	93. 7	베트남항공
아시아나 항공	96. 7	안sett 호주항공
	94. 10	노스웨스트
	96. 1	오스트리아항공
	96. 7	우즈베키스탄항공
	96. 11	호주 콰타스항공

아시아지역 항공사 요금인상

아시아지역 항공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료 3% 인상을 권고 결정에 따라 항공사간 조정을 거쳐 항공료 인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업계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은 아시아 항공사들이 항공료 인상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와 경쟁 항공사간의 관계 때문에 아직 국제선 항공료 인상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IATA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항공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요금인상분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스 등과 달리 항공사간 과다경쟁으로 할인율이 30%에서 40%에 이르고 있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항공료가 곧 인상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전에도 항공료 인상을 꺼리던 항공사는 항공료 인상을 발표하기 앞서 주요 항공사의 동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회원사가 2백50여개에 달하는 IATA는 최근 항공유가 급등함에 따른 조치로 회원사에 12월 15일부터 항공료를 일률적으로 3% 인상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장외프리미엄 상승세

대규모 환차손으로 올 상반기에 큰 적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에 대한 외국인 장외시장(OTC)프리미엄이 대량거래 속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동사는 올 상반기중 매출이 7.8% 증가한데 비해 경상이익은(2천5백6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의 원화환율 수준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있고 수지압박요인으로 작용했던 유가도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이 대한항공을 선호하고 이유라는 게 증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OTC프리미엄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BA사, 3년간 10억파운드 비용삭감 계획

브리티시 에어웨이즈(BA)는 주력사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부문을 개편함으로써 3년간에 걸쳐 10억 파운드(15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삭감하기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5년 5억8천5백만 파운드라는 기록적인 세전 이익을 얻은 데 뒤 따른 위와같은 움직임은 재정상태가 좋을 때 동 항공사의 기반을 확고히하여 '90년대 말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한것으로 해석된다.

BA사의 회장 Bob Ayling은 '이러한 경쟁은 점점 호전되어가고 더욱 효율적으로 되어간다. 우리가 지불하는 좌석당 비용은 여행객의 지불 비용보다 그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95년 동사의 비용은 11.6%가 증가한데 반해 매출은 단지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감축은 증가된 생산성과 불필요한 부분을 없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이와 동시에 기내 오락과 같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발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비행승무원도 주요 비용 삭감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美 노스웨스트 항공, Mesaba 위해 RJ85주문

노스웨스트 항공사는 AIR (Aero International(Regional)) 과 함께 파트너사인 Mesaba의 운항을 위하여 12대의 Avro RJ85를 구입하는데 3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옵션으로 24대의 RJ85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한 동 계약은 북미 항공사 최초의 계약이다.

미네소타에 있는 Mesaba 항공사는 RJ85를 제임대하여 노스웨스트의 대형 정기여객기 노선을 대체하는 운항(Northwest Jet Link)을 시작할 것이다.

RJ85는 97년 4월부터 한 달에 한 대씩 인도될 것이다. 이 항공기는 두 개 클래스, 69석의 좌석이 배치될 것이다. 노스웨스트의 의장인 John Dasburg는 '우리에게 있어서 RJ85는 단거리 운항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종이다' 라고 말한다.

이번 계약의 일부로서 노스웨스트는 Mesaba에 대한 지분을 33.4%로 올릴 예정이다. 원래 노스웨스트는 95년 8월 이 지역

항공사 주식의 29.7%를 인수하였다.

美, 아시아 시장 눈독... 개방압력 강화방침

미국의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항공시장 개방압력이 대폭 강화 될 전망이다.

미국 교통부의 마크 거칙 부차관보는 5일 아시아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항공시장이라고 전체, 미국은 아시아 모든 국가 의 항공시장을 개방시키기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 항공시장 개방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체, 아시아 항공시장 개방이 하룻밤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수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좋은 뉴스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아시아국가에 대한 항공시장 개방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거칙 부차관보는 특히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와 항공시장 개방폭 확대를 위한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